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평가원 6월 모의 정답과 해설 - 상상국어평가연구소 -

공통 과목 정답

1	⑤	2	①	3	③	4	③	5	④
6	④	7	②	8	②	9	①	10	③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②
16	④	17	②	18	②	19	④	20	①
21	⑤	22	⑤	23	③	24	④	25	①
26	③	27	②	28	①	29	③	30	①
31	③	32	④	33	⑤	34	②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정답

								35	②
36	①	37	⑤	38	⑤	39	④	40	④
41	③	42	③	43	①	44	⑤	45	②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정답

								35	⑤
36	④	37	②	38	⑤	39	⑤	40	③
41	④	42	③	43	②	44	①	45	⑤

공통 과목 해설

[1 ~ 3] (독서)

1.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⑤) 예상 오답률 2%

지문에서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읽’는 것은 ㉠의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의 방법이다.

③ 1문단에 따르면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는 ㉠의 방법이다.

④ 1문단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은 ㉠의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정답: ①) 예상 오답률 30%

<보기>에서 연속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맥이 끊어지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연속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에는 토론과 기록이 있다. <보기>에 의하면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벗끼리 ‘학문을 강론하는 것’과 기록을 통해 벗에게 보내는 것이 있다. 따라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보기>의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주제 탐구 과정에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보기>의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⑤ <보기>에 따르면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게 되면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 의하면 독서에서 기록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가 된다. 따라서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정답: ③) 예상 오답률 2%

학생은 윗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가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학생의 반응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② 학생의 반응에서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는 부분은 없다.
- ④ 학생은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 ⑤ 학생의 반응에서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부분은 없다.

[4 ~ 9] (인문)

(연계: EBS 수능특강 독서 85쪽)

4. 내용 전개 방식 파악(정답: ③) 예상 오답률 14%

(가)의 1, 2문단에서 과정 이론을 정의한 뒤 3문단에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과정 이론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과정 이론의 한계는 3문단에 등장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과정 이론에 대한 전망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가)의 1문단은 근대 이후 과학적 세계관의 대두라는 과정 이론의 등장 배경을 흠을 포함한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했다는 ‘ㄱ’의 내용은 적절하다.
- ② (나)의 1문단은 천건설과 천인감응론이라는 두 사상을 결합하여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중서의 재이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ㄴ’의 내용은 적절하다.
- ④ (나)는 ‘인과’와 연관된 재이설을 제시하고 재이설이 변용되는 양상을 한대(漢代) 동중서, 동중서 이후, 송대(宋代) 주희의 재이설의 순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다는 ‘ㄴ’의 내용은 적절하다.

⑤ (가)는 ‘인과’와 관련하여 인과를 과정으로 설명하는 서양 철학자 새먼의 과정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인과’와 관련하여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재이설을 제시하고 있다. ‘ㄹ’은 ‘인과’라는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항목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이므로, “‘인과’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5. 세부 정보 파악(정답: ④) 예상 오답률 15%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한대의 동중서는 인간과 하늘이 음양의 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감응할 수 있다는 천인감응론을 통해, 하늘이 변화된 음양의 기에 반응하여 재이를 내린다는 재이론을 체계화했다. 따라서 한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이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근대 이후 서양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 했다. 과정 이론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시된 인과 이론이다. 따라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 ②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과정 이론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는 것 사이의 인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과정 이론은 인과를 표지의 전달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서양 철학자인 흠은 인과 관계가 관찰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은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해 의심하였다. 따라서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송대의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고, 재이를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 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6. 핵심 정보 파악(정답: ④) 예상 오답률 64%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어떤 과정이 다른 과정과 교차한다는 것은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A]에 따르면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는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는 과정 3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교차하지 않으므로, 과정 2와 과정 3의 교차는 표지를 만들지 않는다. 또 변화된 그림자의 모양이 과정 3에 도입된 표지라면 잘린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계속 유지되므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어야 하는데,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A]에 따르면 바나나가 그리는 시공간적 궤적은 과정 1이고, 바나나 그림자가 그리는 시공간적 궤적은 과정 3이다. 따라서 바나나와 바나나 그림자가 그리는 시공간적 궤적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 ② [A]에 따르면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기 이전, 바나나는 베어 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두 과정이 교차한 이후, 바나나는 베어 낸 상태이다. 따라서 두 과정이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또한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변화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그런데 [A]에 따르면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므로,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할 때 과정 1에서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은 달라졌다.
- ③ [A]에 따르면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반면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할 수 없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과정 이론에서 인과적 과정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인해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과정 3은 과정 1과 달리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 ⑤ [A]에 따르면 스크린 위 바나나 그림자의 이동인 과정 3과 스크린 표면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인 과정 4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는 스크린 위의 일그러진 그림자이다. 그림자가 스티로폼 위를 지나가면, 일그러진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므로 표지는 과정 3에 전달되지 않

으며, 스티로폼 위에는 일그러진 그림자가 남지 않으므로 표지는 과정 4에 전달되지 않는다.

7. 핵심 개념 파악(정답: ②) 예상 오답률 18%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 즉 원인으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재이의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은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은 신하의 진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 ③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전반적 대응설)은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론이다. 즉, ㉡은 정치와 무관하게 재이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재이설은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배경 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이러한 재이론을 고수하며 ㉡을 제시하였다. 즉, ㉡은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 또한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누적되면 재이가 일어난다는 ㉡을 제시했다. 즉, ㉡은 개별적인 재이 현상을 다루고 있지 않다.
- ④ (나)에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을 제시했다. ㉡은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재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론이다. 따라서 ㉡은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군주를 경계하는 데 활용되었다.
-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을 제시하였다. 즉, 주희가 제시한 ㉡에는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

인감응론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희는 ㉡을 통해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켰다. 따라서 ㉢은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지 않았다.

8.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정답: ㉡) 예상 오답률 47%

<보기>의 ㉣에 따르면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동중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는 재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동중서는 인과 관계를 서로 다른 대상이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하는 상호 작용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재이론이 보여 준 입장과 부합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에 따르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또한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흠은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새먼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과정 이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보기>의 ㉣에 따르면 덕이 잘 담긴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다. 그리고 (나)의 1문단에서 동중서에 따르면 하늘이 재이를 통해 군주의 실정에 대해 경고를 내린다. 또한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주희에 따르면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보기>의 ㉣에 대해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④ <보기>의 ㉣에 따르면 덕이 잘 담긴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

의 때에 출현했다. 따라서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새먼의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일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은 과정 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⑤ <보기>의 ㉣에 따르면 실정에 따라 재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지방관의 실정과 홍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정이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방관의 실정에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에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정답: ㉠) 예상 오답률 1%

㉠은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로, ①이 문맥상 같은 의미로 쓰인 사례이다.

[오답풀이]

- ②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의 의미이다.
- ③ ‘어떤 것을 구하다.’의 의미이다.
- ④ ‘원상태를 회복하다.’의 의미이다.
- ⑤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의 의미이다.

[10 ~ 13] (사회)

(연계: EBS 수능특강 독서 239쪽)

10. 세부 내용 파악(정답: ㉢) 예상 오답률 10%

1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주권은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는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권자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법을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하였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형벌 제도가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운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로 보았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고 보았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때 양도의 범위는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떼어 준 자유의 일부를 말한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11. 핵심 개념 이해(정답: ⑤) 예상 오답률 7%

2문단에 따르면 ㉠(올타리)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의 ‘형벌’을 의미한다. 베카리아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형벌의 범죄 예방적 목적은 달성된다고 보았다. 이 높이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따라서 지키려는 공익보다 ㉠을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은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범죄로 얻을 이득’과 ‘형벌이 가하는 손해’ 사이의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을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

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형벌의 범죄 예방적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므로 ㉠의 높이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따라서 ㉠은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한편, 1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의 목적은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되므로 이러한 목적 달성에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이 활용된다.

12. 세부 내용 추론(정답: ④) 예상 오답률 40%

1문단에 따르면 사람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따라서 법과 형벌에 대한 합의에 가장 큰 가치인 생명이 포함될 수 없어, 이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

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된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았다. 사형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범죄로 얻을 이득, 즉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불필요하게 클 수도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지 않으며, 이는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사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도 거리가 있다고 본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그는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기 때문에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으며,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에 찬성할 것이다.

13. 어휘의 문맥적 파악(정답: ②) 예상 오답률 35%

‘단절(斷絶)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⑥의 ‘가로막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로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방지(防止)하다’의

활용형인 ‘방지(防止)하는’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향유(享有)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④의 ‘누리기로’를 ‘향유(享有)하기로’와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다.

③ ‘둔감(鈍感)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③의 ‘무디어져’를 ‘둔감(鈍感)해져’로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다.

④ ‘지대(至大)하다’는 ‘더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④의 ‘크나큰’을 ‘지대(至大)한’으로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다.

⑤ ‘수립(樹立)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⑤의 ‘세웠다는’을 ‘수립(樹立)하였다는’과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다.

[14 ~ 17] (과학)

(연계: EBS 수능특강 독서 174쪽)

14.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①) 예상 오답률 27%

1문단에 따르면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표적 DNA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말하므로,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은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서 한 사이클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DNA 복제 과정을 말하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5문단에 따르면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를 통해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기 위해서는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량을 알아야 한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2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 DNA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1문단에 따르면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15. 중심 내용 파악(정답: ㉔) 예상 오답률 47%

3문단에 따르면 ㉑(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은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지만, 4문단에 따르면 ㉒(형광 표식 탐침)은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야 형광 물질이 발색한다. 이 과정은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될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㉑은 ㉒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오답풀이]

㉑ 3문단에 따르면 ㉑은 2중 가닥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1문단에 따르면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 DNA이다. 따라서 ㉑은 프라이머에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㉒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 따라서 ㉒은 프라이머에 결합하지 않는다.

㉓ 3문단에 따르면 ㉑은 이중 가닥에 결합하는 형광 물질이며, 4문단에 따르면 ㉒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 단일 가닥 DNA가 결합한 물질로서 단일 가닥인 표적 DNA에 결합한다. 따라서 ㉑과 ㉒ 모두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3문단에 따르면 ㉑은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2문단에 따르면 PCR에서 이중 가닥의 DNA가 형성되는 것은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고, 이를 DNA 중합 효소가 복제한 이후이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㉒은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날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2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은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㉑과 ㉒ 모두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서는 발색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㉕ 3문단에 따르면 ㉑은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다. 반면, 4문단에 따르면 ㉒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될 때 표적 DNA에 결합한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정답: ㉔) 예상 오답률 50%

5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사이클마다 변화하는 발색도를 통해 DNA의 농도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이때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며, 1문단에 따르면 PCR에서 표적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그 염기 서열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㉑ 1문단에 따르면 PCR를 통해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도 증폭을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㉒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하다.

㉓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달리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㉔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에서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확인할 수 있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정답: ㉔) 예상 오답률 66%

㉑ : 2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서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보기 2>에 따르면 ㉑이 ㉒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 그러므로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㉑이 ㉒보다 많다.

㉒ : 5문단에 따르면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사이클

이다. 그러므로 두 시료의 Ct값이 다르더라도 두 시료의 표적 DNA가 동일하다면,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는 동일하므로 각각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동일하다. 따라서 실시간 PCR에서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와 같다.

㉢ : 5문단에 따르면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사이클이다. ㉠과 ㉡ 모두 도달해야 하는 발색도는 동일하지만, 시간 당 발색도의 증가 정도는 ㉠이 ㉡보다 빠르다. 따라서 ㉠이 ㉡보다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짧을 것이므로, Ct는 ㉠이 ㉡보다 작을 것이다.

[18 ~ 21] (현대소설)

홍성원, 「무사와 악사」

(연계: EBS 수능특강 문학 181쪽)

18. 서술상 특징 파악(정답: ②) 예상 오답률 3%

윗글은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하는, 이야기 내부의 1인칭 서술자를 채택하고 있다. [A] 부분은 임 씨로부터 기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가 기범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 동질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라거나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서술자는 기범에 대해 관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답풀이]

- ① [A] 부분은 기범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그가 했던 말과 삶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윗글의 서술자는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하는 이야기 내부의 존재이며, [A] 부분에서는 사건의 배경을 제시하지 않는다.
- ④ [A]에서는 기범의 회상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A]에서는 기범의 내면이 묘사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 구절의 의미 파악(정답: ④) 예상 오답률 5%

‘나’는 기범이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당시 기범이 세상을 등지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은 아니며, 위의 판단은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은 기범이 사전에 약속한 바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기범은 ‘돌연한 웃음’을 보여 ‘나’를 놀라게 하더니, 또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느냐?’고 말하며 ‘번쩍이는 눈물’을 보인다. ㉠은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다시 눈물을 보이는 기범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임 씨는 처음에 기범이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하고 그의 신원을 궁금해했다. 그런데 기범이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자, 그의 신원에 대한 의심이 가중되었음을, ㉡의 ‘더구나’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라는 것은 임 씨가 파악한 기범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 그런데 ㉢의 ‘이상한 눈’이라는 표현에는, 이 같은 기범의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임 씨의 판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에서 임 씨는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미련하다’라고 했지만 숨은 뜻은 ‘착한 일’이었다는 해석으로, 기범에 대한 임 씨의 우호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정답: ①) 예상 오답률 11%

임 씨는 기범의 세계관에 대해 ‘남하구 다른 묘한 철학’이라고 표현한다. 그 내용은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기범은 자신의 생각을 ‘부정의 미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를 전해들은 ‘나’는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끼며,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임 씨로부터 전해들은 ㉠은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나’가 아닌 ‘저’, 즉 윤 씨였으며, 이를 통해 기범에 대한 ‘나’의 오해가 풀려 간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가 ‘기범이 지꼈었던 과거의 요설들’을 떠올리는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나’는 ㉡에 대해 ‘저’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저’는 ㉡의 내용이나 ㉡에 대한 ‘나’의 태도를 알 수 없다.
- ④ ‘저’는 그것이 ‘퀘번’ 같다고는 하지만 ㉠을 통해

기범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있다. 한편 ‘나’는 과거에는 ㉞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기범에 대해 새롭게 이해해 가고 있다.

⑤ ㉜는 ‘나’의 내면에서 상기된 것으로 ‘저’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기범의 행동이 변화를 보였거나 ㉞에서 ㉜로 변화했다는 것은 ‘저’가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㉝) 예상 오답률 8%

<보기>에 따르면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범이 ‘나’에게 ‘내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라고 말한 것은 동일시의 대상인 일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범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일규와의 동일시를 통한 기범의 성취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윤 씨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기범은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자 ‘충격을 받으시구’ 산골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윤 씨는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기범의 말을 전한다. 일규가 죽자 세상 살 재미가 없어져서 세상을 등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대상이 사라진 것이 기범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동일시하려는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이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기범은 일규가 ‘나를 발길로 걷어차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일규로부터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사람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일규의 얼굴을 떠올리고 일규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라는 기범의 고백은, 그가 일규를 자신과 동일시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동일시하려는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 상대가 사라질 경우, 사람들은 상대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일규가 죽은 후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지자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은 기범의 행동은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2 ~ 27] (고전시가 / 현대수필)

김시습, 「유객」(비연계)

김광옥, 「울리유곡」(연계: EBS 수능특강 문학 225쪽)

김용준, 「조어삼매」(비연계)

22.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정답: ㉝) 예상 오답률 15%

(가)는 ‘봄 산’을 통해 봄의 계절을 드러내고 있으며, ‘산새’가 지저귀고, ‘꽃잎’이 떨어지고, ‘나물’이 돌아나고, ‘버섯’이 비를 맞는 등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나)는 <제15곡>의 ‘세버들’과 ‘살구꽃’을 통해 봄의 계절을 드러내고 있으며, ‘온골’에 ‘살구꽃’이 저서 쌓여 있는 등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나물’이 ‘때 알아 돌아나’는 속성이 드러날 뿐, 이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에서는 ‘세버들’, ‘고기’, ‘살구꽃’ 등의 자연물을 언급했을 뿐,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다.

②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나)에서는 ‘다르랴’, ‘부러우랴’, ‘시원하랴’, ‘있으랴’ 등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근심 사라지네’를 통해 심리의 변화가 드러날 뿐,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나)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10곡>의 ‘달’에서 <15곡>의 ‘살구꽃’으로 옮겨지고 있을 뿐,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나그네’로 객관화하여 표현했을 뿐,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나)는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3.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㉓) 예상 오답률 1%

<제10곡>에서는 ‘문서’를 ‘내던지고’ 자연으로 돌아온 화자는 ‘매인 새’가 놓인 것보다 ‘시원하’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제1곡>에서는 ‘밤마을’이라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수졸전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강산’을 ‘삼공’과 바꿀 수 없다고 했고, ‘청홍’을 가지고 있으면 ‘만호후’가 부럽지 않다고 했다. 이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한 것이다.
- ④ <제15곡>에서는 ‘세버들 가지’를 꺾어 ‘냇은 고기’를 꿰어서 들고, ‘냇은 다리’를 건너는 등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자연에서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화자가 ‘취 행수’와 ‘조 동갑’을 호명하며 ‘닭찜 게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정답: ㉔) 예상 오답률 4%

글쓴이는 ‘세상’이 ‘뒤숭숭’할 때 ‘서재’에 있으면 ‘울화’가 터진다고 했다. ㉔은 글쓴이가 낚시를 선택하기 전의 ‘서재’에서 지내는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㉔은 글쓴이가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㉑에서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은 ‘운치 있는 생활’이면서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낸 것이다.
- ② ㉒에서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과 같이 주객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㉒에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하는 것은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 ③ ㉓에서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한 점 찌에 기울이’는 것은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을,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표현한 것은 기다림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

한 것이다.

- ⑤ ㉔에서 글쓴이는 ‘위진 간에 심산벽촌에 은거하여 청담이나 일삼던’ 옛사람들의 심경을 욕한 적도 있었으나, 자신이 그들의 심경에 처하고 보니 그들의 ‘심정을 넉넉히 동감’한다고 하였다. 이는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정답: ㉑) 예상 오답률 16%

(나)의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에서 ‘연명’은 화자가 자신을 표현한 말로, 이는 자신이 자연에 은거한 ‘도연명’과 유사함을 드러낸 것이다. (나)에서는 도연명이 살았던 공간인 ‘밤마을’과 화자가 머물고 있는 울리(밤마을)의 이름이 같을 뿐 아니라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사는 점 또한 도연명과 화자가 같다고 한다. 이는 화자가 도연명과 자신의 공통점을 드러낸 것으로, 화자가 도연명의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판교’의 행적을 떠올리면서 ‘모든 속사를 버리고 표면히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한다. 이때 ‘판교’는 ‘관직을 버리고’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낸 사람으로,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오답풀이]

- ② (나)의 ‘삼공’은 높은 지위를 차지한 벼슬아치를 의미하지만 (다)의 ‘성격 파산자’는 공연히 거리를 오가는 사람일 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는 고기를 썬 대상이며,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낚싯대를 만드는 소재일 뿐, 각각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④ (나)의 ‘고기’는 화자가 낚시하여 잡은 대상이며, (다)의 ‘송사리’는 화자가 낚시질로 잡기에 마땅치 않다고 여긴 대상일 뿐, 각각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 아니다.
- ⑤ (나)의 ‘시름’은 전원에서 지내면 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나)에서 화자는 속세에서 전원으로 돌아오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시름’은 속세

에서 화자를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육’은 화자가 한때 ‘심산벽촌에 은거하여 청담이나 일삼던’ 사람들을 비판했던 말일 뿐, 글쓰기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26.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③) 예상 오답률 4%

[A]에서 글쓰이는 ‘큰 고기’는 커녕 ‘방계’와 ‘개구리’ 등이 낚싯대에 걸리자 이를 ‘기막힌 일’이라고 말하며 실망감을 드러낸다. 이는 [B]에서는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데 보잘 것 없는 것들만 잡힌다고 하며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오답풀이]

- ① [A]에서 글쓰이는 자신의 의도와 다른 상황을 탄식할 뿐, 경이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B]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 뿐,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보이지 않는다.
- ② [A]에서 글쓰이는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없나보다.’에서 무력감을 드러내지만 [B]에서는 과거 삶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지 않는다.
- ④ [A]에서 글쓰이는 상실감을 느끼지만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지 않는다.
- ⑤ [A]에서 글쓰이는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B]에서 ‘개구리’와 ‘방계’를 ‘구역질 나는 놈들’이라고 칭하며 혐오감을 드러낸다. 한편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을 표현하지 않았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②) 예상 오답률 12%

<보기>에 따르면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나)에서 화자는 ‘주가’를 찾으려 ‘낮은 다리’를 건너다가 ‘온 골’에 꽃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이때 ‘주가’와 ‘온 골’은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므로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이 아니며, ‘낮은 다리’는 두 공간을 이어줄 뿐, 대비되는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이면에 전제된 공간이 포함된다.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들어서자 ‘백

년 근심’이 사라지는 곳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이와 대립되는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은 직접 표현되기도 한다.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인 전원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인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화자가 돌아온 전원은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④ (다)의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쓰이가 낚시를 하며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한 곳이다. 이는 글쓰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⑤ (다)에서 글쓰이는 세상이 뒤숭숭하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에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해 ‘죄 없는 곳’이라 여기는 ‘내 서재’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글쓰이는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면에 ‘내 서재’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 지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8 ~ 31] (고전산문)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연계: EBS 수능특강 문학 139쪽)

28.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①) 예상 오답률 8%

윗글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이라는 부분을 통해 송이가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이는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홀로 탄식하며 지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감사의 걱정을 산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윗글에서 송이는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라는 감사의 말을 통해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③ 윗글에서 감사는 필성에게 ‘가위 여옥기인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라는 말로 ‘대회하여 칭찬’한다. 이를 통해 감사가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걸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④ 윗글에서 송이는 잠이 들어 ‘오매불망하던 장필

성'을 본다.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올라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된다는 부분을 통해 송이가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장필성과 만남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윗글에서 필성은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라고 여겨 이방이 되지만,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알 길이 없고 '서로 글씨만 보고 장연히 지내'게 된다. 이를 통해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정답: ③) 예상 오답률 6%

㉔를 본 송이는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예를 드나드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짐작하고, 감사에게 이를 확인하여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한편 송이는 자신의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마음먹고 ㉔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오답풀이]

① 감사는 ㉔를 보고 이방이 바뀌었는지 묻는 송이에게 장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려 줄 뿐,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채지 못한다. 감사는 ㉔를 읽고 난 뒤 송이가 흐느껴 울게 된 사정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② 송이는 ㉔를 보고 필법이 필성의 필적 같다고 생각하여 감사에게 ㉔를 쓴 사람이 필성이 맞는지 확인한다. ㉔는 송이가 ㉔를 쓴 사람이 필성임을 알게 된 이후 그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탄식하며 쓴 것일 뿐, 필성에게 자신의 궁금증을 알리려 쓴 것이 아니다.

④ ㉔는 필성이 작성하는 공무상의 문서이다. 따라서 필성이 감사로부터 ㉔를 전달받은 것도, 이로 인해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㉔는 송이가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쓴 것이므로 필성이 쓴 것이 아니다.

⑤ 송이는 ㉔를 보고 자신과 가까운 곳에 필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감사에게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확인한 송이는 필성과 재회하려 노력하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다. 이에 송이는 필성과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탄식하며 ㉔를 쓴 것이므로, ㉔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30. 소재의 기능 파악(정답: ①) 예상 오답률 12%

[A]에서 '달'은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자연물이자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송이는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달'에 의탁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A]에서 '달'은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 '두견이 슬피' 우는 소리 등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③ [A]에서 송이는 인격화된 '달'에게 말을 건넨다. 그녀는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시고.' 등에서 '달'에게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냄으로써 필성과 만나지 못해 외로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④ [A]에서 송이는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뜬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다는 옛 이야기를 언급한다.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도록 한 것이다.

⑤ [A]에서 송이는 '달'을 보며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던 추억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필성과의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③) 예상 오답률 14%

<보기>에 따르면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윗글에서 송이는 감사에게 ㉔ 동안 공청으로 들어온 '공사 문첩'의 글씨가 전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방이 갈 리었'느냐고 묻는다. 이는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㉔은 필성이 이방 일을 하게 되면서 '공사 문첩'을 작성한 기간을 의미할 뿐,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㉔은 필성이 송이를 만나기 위해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되려는 계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주선'할 때, 이와 맞물려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고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이는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② ㉠은 평범한 일상 중 ‘공사 문첩 한 장’을 본 송이가 이에 대해 감사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된 시간이다. 이는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④ ㉡은 필성과 송이가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낸다. 이는 두 사람이 가진 그리움이 깊어졌음을 함축하는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⑤ ㉢은 ‘팔십여 세’의 나이로 잠이 없고 ‘국은에 보답’할까 궁리하느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감사의 사람됨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짓게 한다. 감사는 깨어 있었기에 송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의 방으로 향하게 된 것이므로, ㉢은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32 ~ 34] (현대시)

김기림, 「연륜」(비연계)

김광균, 「대장간의 유혹」(연계: EBS 수능특강 문학 107쪽)

32.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정답: ④) 예상 오답률 12%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시간이 ‘무너지는’ 꽃 같은 것으로 여기며 ‘나려 앉은’ 섬으로 가려한다. 즉 화자는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무너지는’, ‘나려 앉은’이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나)에서는 ‘뛰어내리고’, ‘떨어져 내리는’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향하는 삶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풀무질’, ‘달구고’, ‘벼리고’ 등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나열되고 있으나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가)에서는 화자의 움직임이 ‘갈매기’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의 움직임을 자연물에 빗댄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비취빛’이라는 색채어가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드러낸다. (나)에서

는 ‘시퍼런’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무쇠 낮’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⑤ (가)와 (나)에서는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정답: ⑤) 예상 오답률 13%

(가)의 ‘또한’은 화자도 ‘불꽃’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표현으로 열정을 지닌 ‘불꽃’과 화자의 동질성을 드러낸다. (나)의 ‘마구’는 ‘아무렇게나 함부로’의 의미로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플라스틱 물건’에 대한 진술이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함으로써 ‘플라스틱 물건’과 자신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마구’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단어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자신도 불꽃처럼 ‘열렬히’ 살 것이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제 손으로’ 만드는 정성도 없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들과 ‘땀 흘리며’ 정성을 들여 ‘하나씩’ 만들어진 것들을 대조하고 있다. 이 때 ‘하나씩’ 만들어진 것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들에 비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가치와 개성을 지닌 존재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럽다고 하였다. 이때의 ‘온통’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의미한다.

④ (가)에서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라고 진술함으로써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온 모습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드러낸다. (나)에서는 화자 자신이 ‘마구 쓰다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면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무가치한 삶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당장’은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절박함을 드러낸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정답: ②) 예상 오답률 57%

(가)의 ‘불꽃’은 열정적인 삶의 태도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긍정적 시어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불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특성 그 자체이지,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지난 삶이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했음을 드러낸다.

③ (나)에서 ‘대장간’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들이 만 들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화자가 그곳에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발견한 일상의 결핍을 채우고 싶다는 바람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호미’는 ‘대장간 벽에 걸릴 수 있는 대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걸려 있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똥덩이’와 같다고 느낀 화자가 자신도 ‘호미’와 같이 가치 있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가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육지’는 ‘초라한 경력’의 시간을 막아 두는 곳으로, 화자는 ‘육지’를 떠나 ‘섬’으로 가려 한다. 또한 (나)에서 ‘버스’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화자는 ‘버스’에서 벗어나 ‘털 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 한다.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는 결핍을 느끼는 상황을 발견하고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가)의 ‘육지’와 (나)의 ‘버스’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결핍의 공간이다.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해설

[35 ~ 37] (화법) 강연

35. 강연 표현 전략 사용하기(정답: ②) 예상 오답률 3%

강연자는 2문단에서 청중이 사는 도시의 사진을 보여 주고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시지요?’라고 물으며 강연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강연자는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 강연 대상을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강연자는 2문단에서 도시의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통계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강연자는 도입부에서 청중이 사는 도시의 2년 전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와 최근의 사례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강연자는 도입부에서 청중이 봉사 활동을 했던 모습을 보여 주고 강연의 주제를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을 뿐,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36. 강연 맥락 분석하기(정답: ①) 예상 오답률 12%

강연자는 3문단에서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안내하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름철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위한 준비 사항은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강연자는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2문단에서 그림을 활용하여 도시의 토양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강연자는 도시 가로수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3문단에서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뿌리는 방안과 ‘물주머니를 매달고 토양 보습제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강연자는 봉사 활동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3문단에서 ‘여러분 덕분에 △△시의 가로수가 올 여름에는 말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봉사 활동이 가로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강연자는 2문단에서 청중이 사는 도시의 2년 전 사진을 제시하며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중의 지역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37. 강연 내용 이해, 평가하기(정답: ⑤) 예상 오답률 2%

㉔에서 학생은 강연에서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폭염 이외에도 대기 오염도 가로수 고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추측을 드러낸 것일 뿐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① 강연의 2문단에서 설명한 도시의 토양 환경이 가로수에 미치는 영향을 ㉠에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메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로수에 수분이 전달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정보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강연의 2문단에서 ‘건조에 강한 수종’을 도시 가로수로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해 ㉡에서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를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므로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강연의 2문단에서 가로수가 건조에 견딜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것에 대해 학생은 ㉢에서 동네에서 가로수 보호 틀을 본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강연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지으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강연의 3문단에서 가로수 지킴이 활동에 대해 ‘나무마다 물주머니를 매달고 토양 보습제를 투입’하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을 ㉣에서 자신이 할 일로 따로 묶고 있으므로 강연의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38 ~ 42] (화법+작문) 대화+건의문+기고문

38.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정답: ㉤) 예상 오답률 1%

㉠에서 ‘학생 2’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라며 앞서 문제 상황의 원인이 이용자에게 있다고 한 내용을 일부 반복하고 있으나 ‘학생 1’과 상충되는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① ㉠에서 ‘학생 1’은 ‘너는 수거함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사안의 원인을 묻는 ‘학생 2’에게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라며 자신이 본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해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 ② ㉡에서 ‘학생 2’는 ‘시청이 적극 노력해서 잘 해결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언급한 ‘학생 1’에게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에서 ‘학생 2’는 ○○시청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주장한 ‘학생 1’에게 ‘네 말은 우리 시청이~원인이라는 거지?’라고 물으며 ‘학생 1’의 의견을 자신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④ ㉣에서 ‘학생 2’는 ‘그 말도 맞지만’이라며 상대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라며 문제 상황의 원인이 시청에 있다고 보는 ‘학생 1’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39. 대화 맥락 분석하기(정답: ㉣) 예상 오답률 0%

‘학생 1’은 ‘찾은 자료 나한테 전자 우편으로 보내줘.’라며 ‘학생 2’에게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 2’는 ‘네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좀 당황스러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 2’의 부정적인 반응을 본 ‘학생 1’은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라며 질문의 방식으로 ‘학생 2’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학생 1’이 ‘찾은 자료 나한테 전자 우편으로 보내줘.’라며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학생 2’는 ‘당황스러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② ‘학생 1’이 ‘나도 의류 수거함 생각했는데.’라며 ‘학생 2’와 의견이 일치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 2’의 긍정적인 반응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학생 1’이 상대에게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거나 이에 대해 ‘학생 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학생 1’의 ‘나도 의류 수거함 생각했는데’를 ‘자신의 상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 1’이 상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40.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정답: ㉣) 예상 오답률 6%

(가)에서 ‘학생 1’은 여덟 번째 발언에서 ‘공공의 문제 해결에는 시청의 영향력이 크니까.’라며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제시한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는 시청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의류 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학생 2’는 네 번째 발언에서 ‘평소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도 수거함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라며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1문단에서는 ‘저희 학교의 많은 학생들도~건

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라며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가)에서 ‘학생 2’가 다섯 번째 발언을 통해 ‘의류 수거함 주변이~쓰레기들도 많고.’라고 의류 수거함의 상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의 1문단에서는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쓰레기장이 된 곳도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③ (가)에서 ‘학생 1’이 여섯 번째 발언에서 언급한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나)의 3문단에서는 해당 신문 기사를 자신의 견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학생 1’은 아홉 번째 발언에서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2문단에서는 ‘의류를 자원으로~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41. 작문의 상황 맥락 이해하기(정답: ③) 예상 오답률 12%

(가)의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어야지’라는 ‘학생 2’의 발언과 (다)의 3문단의 ‘그렇다면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통해 (다)의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독자로서 상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시청의 조치를 촉구하는 글로, 의류 수거함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동체의 문제 상황에 대해 ‘파손되고 방치된 의류 수거함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것과 ‘의류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는 시청 누리집 게시관에 올린 글로,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에 대한 동영상 첨부하고 인근 지역의 의류 수거함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의 링크를 제시하여 예상 독자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④ (다)에서는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 쓰레기로~쓰레기장이 된 곳도 있다.’라며 공동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⑤ (나)의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의류 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이 인식도 좋아질 것입니다’와 (다)의 ‘나눔과 공유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에서 의류 수거함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예상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42.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정답: ③) 예상 오답률 4%

⑥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물건을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⑥를 ‘의류와 가방 담요’와 같이 투입 가능한 물건과 ‘솜이불과 베개, 신발’과 같이 투입 불가능한 물건을 제시한 ③의 문장과 같이 수정하면 문장 간의 긴밀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의 앞 문장은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할 경우 의류의 재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재사용하는 이유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는 재사용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것이므로 문장 간의 긴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⑥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넣을 물건을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⑥의 뒤 문장은 의류 수거함에 넣을 물건의 상태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⑥는 의류가 물에 젖었을 때의 배출 방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예를 들어’를 ‘그러나’로 수정하여도 앞뒤 문장과의 긴밀성을 높여 주지는 못한다.

④ ②의 앞 문장은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할 경우 의류의 재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변 친구들이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를 넣지 않는다는 내용은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⑥의 앞 문장은 수거함에 투입 가능한 물건과 투입 불가능한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⑤에 제시된 문장은 이용자들에게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 방식을 안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므로 앞선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43 ~ 45] (작문) 설명문

(연계: EBS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221쪽)

43.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정답: ①) 예상 오답률 2%

‘학생의 초고’에서는 쓰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쓰기 방식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손글씨 쓰기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② ‘학생의 초고’ 1문단에서 ‘컴퓨터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쓰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펜을 쥐는 대신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일상화되었다’고 하며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일상화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 ③ ‘학생의 초고’ 2문단에서 ‘강’과 ‘물’을 예로 들어, 컴퓨터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에는 단어가 달라도 ‘손가락으로 세 번의 타점을 두드리는 동작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손으로 글씨를 쓸 때에는 ‘손의 동선이 그대로 글씨를 이루며 단어마다 다른 궤적이 생기게 된다’며 두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생의 초고’ 3문단에서 손 글씨 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정보의 선별과 구조화라는 고등 사고 과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손 글씨 쓰기의 느린 속도에서 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⑤ ‘학생의 초고’ 4문단에서 최근 손 글씨 쓰기의 ‘정서적 효과’가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4.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정답: ⑤) 예상 오답률 3%

‘학생의 초고’ 2~4문단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는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점,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 성취감 등의 ‘정서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⑤에서는 제시된 조언에 따라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이해도 향상, 정서적 효과’라는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고, 이러한 효과들을 ‘세 가지 빛깔의 진주’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손 글씨 쓰기의 다양한 효과’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유적 표현도 찾아볼 수 없다.
- ② ‘손 글씨 쓰기가 동전의 양면과 같음’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손 글씨 쓰기의 효과로 ‘정서적 효과’만을 언급하여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손 글씨 쓰기가 우리의 뇌, 이해,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그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늘 별처럼 빛날 것이

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손 글씨 쓰기는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효과’를 준다고만 언급하여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45.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정답: ②) 예상 오답률 5%

<보기>의 ㄴ에 제시된 ‘과제 1’에 따르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와 손 글씨 쓰기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 후 기억 여부를 묻은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의 초고’ 3문단에서는 ‘손 글씨 쓰기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할 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ㄴ의 ‘과제 1’을 활용하여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생의 초고’ 3문단에 ‘손 글씨 쓰기가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 ① ‘학생의 초고’ 2문단에는 손 글씨 쓰기를 통해 ‘뇌의 시각 처리와 손을 통한 운동 경험, 쓰고자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보기>의 ㄱ에서는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의 뇌의 전 영역에 걸쳐 신경 회로가 형성되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손 글씨 쓰기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초고’ 3문단에는 손 글씨 쓰기를 통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정보의 선별과 구조화’라는 사고 과정을 거쳐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보기>의 ㄴ에 제시된 ‘과제 2’에 따르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와 손 글씨 쓰기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 후 개념의 이해를 묻은 결과 ‘손 글씨 쓰기 방식으로 정리한 집단이 훨씬 높은 성취를 보였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손 글씨 쓰기가 내용 이해도를 높인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초고’ 1문단에는 많은 학생들이 “손 글씨 쓰기’보다 힘이 덜 들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선호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보기>의 ㄷ-1에 따르면 ‘학습 과제 작성 시 선호하는 쓰기 방식’을 묻는 설문 조사에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선호한다는 학생들이 72%로 나타났으므로, 이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 방식을 선호한다는 1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⑤ ‘학생의 초고’ 4문단에는 손 글씨 쓰기를 통해 ‘자신이 적고 있는 글귀에 몰입’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등의 정서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보기>의 ㄷ-2에 따르면 학습 과제 작성 시 학생들이 ‘손 글씨 쓰기’를 선호하는 이유로 ‘내 과제에 애착이 생겨서’, ‘과제에 정성을 쏟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생의 초고’ 4문단에 언급된 정서적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ㄷ-2를 활용하여 손 글씨 쓰기가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정서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을 4문단에 보충할 수 있다.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해설

[35 ~ 39] (언어)

(연계: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61쪽)

35. 용언의 활용(정답: ⑤) 예상 오답률 25%

‘캐묻다’는 ‘캐물어, 캐물으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고, ‘옛들다’도 ‘옛들어, 옛들으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한다. 또, ‘캐묻다’와 ‘옛들다’는 모두 어간 말음인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활용을 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므로 활용 양상이 동일하며 ㉢ 역시 만족하는 용언의 짝이다.

[오답풀이]

① ‘구르다’는 ‘굴러, 구르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고, ‘잠그다’도 ‘잠가, 잠그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지만, ‘구르다’는 어간의 끝음절 ‘ㄹ’가 어미 ‘-어’ 앞에서 ‘ㄹㄹ’로 바뀌는 ‘ㄹ’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고, ‘잠그다’는 용언의 어간 ‘ㅇ’가 ‘아’나 ‘어’ 앞에서 탈락하는 ‘ㅇ’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므로 활용 양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은 만족하지 못한다.

② ‘호르다’는 ‘흘러, 흐르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

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고, ‘푸르다’도 ‘푸르러, 푸르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지만, ‘호르다’는 어간의 끝음절 ‘ㄹ’가 어미 ‘-어’ 앞에서 ‘ㄹㄹ’로 바뀌는 ‘ㄹ’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고, ‘푸르다’는 어미의 ‘-어’가 ‘-러’로 바뀌는 활용을 하는 용언이므로 활용 양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은 만족하지 못한다.

③ ‘뒤집다’는 ‘뒤집어, 뒤집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지 못하고, ‘껴입다’도 ‘껴입어, 끼입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지 못한다. 둘 다 규칙 활용 용언이고 활용 양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은 만족한다.

④ ‘붙잡다’는 ‘붙잡아, 붙잡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하지 못하고, ‘정답다’는 ‘정다워, 정다우니’처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을 만족한다. ‘붙잡다’와 ‘정답다’는 서로 활용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도 만족하지 못한다.

(연계: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52쪽)

36. 음운 변동과 표기(정답: ④) 예상 오답률 10%

㉠의 ‘쌍으니’는 [싸으니]로 발음되므로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의 ‘서’는 ‘서다’의 어간 ‘서-’가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서’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므로,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② ㉡의 ‘꺼’는 ‘끄다’의 어간 ‘끄-’가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 모음 탈락이 일어나 ‘꺼’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므로,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③ ㉢의 ‘푸니’는 ‘풀다’의 어간 ‘풀-’이 어미 ‘-니’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ㄹ’ 탈락이 일어나 ‘푸니’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므로,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⑤ ㉤의 ‘민는’은 [민는]으로 발음되므로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연계: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65, 68, 72쪽)

37. 안은문장에서 안긴문장의 기능(정답: ②) 예상 오답률 12%

㉑는 서술절이고 ㉒는 관형절, 관형어로 쓰인 명사절이며 ㉓는 ㉑, ㉒를 제외한 것이므로 관형어로 쓰이지 않은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중 하나이다.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로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㉔의 밑줄 친 부분은 ‘노래를 부르다’가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한 명사절이고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주어로 쓰였으므로 ㉑나 ㉒에 해당하지 않고 ㉓에 해당한다.

㉕의 밑줄 친 부분은 ‘아무도 모르다’가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한 부사절이므로 ㉑나 ㉒에 해당하지 않고 ㉓에 해당한다.

㉖의 밑줄 친 부분은 ‘동생이 오다’가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한 명사절이지만 뒤의 체언 ‘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㉒에 해당한다.

㉗의 밑줄 친 부분은 ‘마음씨가 착하다’가 안은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서술절이고 ㉑에 해당한다.

(연계: EBS 수능특강 79, 108쪽)

38. 지시 표현, 대응 표현(정답: ㉑) 예상 오답률 14%

㉑ ‘저희’는 화자인 ‘후배 2’가 ‘후배 1’과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쓴 말이지만 청자인 ‘선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① ㉑ ‘학교에서’는 부사어이고 ㉒ ‘학교에서’는 주어이므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
- ② ㉓ ‘우리’에는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선배 부원(자기 자신)과 후배 부원 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③ ㉔ ‘자신’은 같은 문장의 뒤쪽에 있는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㉕ ‘서로’는 ㉑의 ‘학교’와 ㉒의 ‘우리(우리 동아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연계: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20쪽)

39.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정답: ㉑) 예상 오답률 3%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을 의미하므로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 ‘코²’이고 ㉑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뭍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의 ‘코’는

‘코¹’의 두 번째 의미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이므로 ㉑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㉒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②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을 의미하므로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 ‘코²’이고 ㉑이 아니라 ㉒에 해당한다.

③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의 ‘코’는 ‘코¹’의 첫 번째 의미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이므로 ㉒ 주변적 의미가 아니라 ㉑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④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의 ‘코’는 ‘코¹’의 첫 번째 의미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이므로 ㉒ 주변적 의미가 아니라 ㉑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40 ~ 42] (매체) 인터넷 신문

(연계: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60쪽 1번)

40.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보 전달 방식(정답: ㉑) 예상 오답률 2%

인터넷에 공유된 △△군민신문에는 기사의 하단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관련 기사의 제목에는 ‘눌러 바로 가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의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군민신문을 읽은 정보 수용자는 ‘SNS에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것은 정보 수용자가 아닌 정보 생산자에 한해 가능하다.

② 정보 수용자는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이용하여 기사의 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다.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는 기사 내에 사용된 자료가 통계 자료나 설문 조사 등 검증된 자료일 때 검증할 수 있다.

④ △△군민신문의 기사는 문자와 사진을 활용하여 복합 양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와 사진은 시각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을 통해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정답: ④) 예상 오답률 30%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수 추이’ 그래프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지만 숙박 시설의 수는 증가하지 않는 △△군의 실정을 드러내는 자료이고, ‘여행 1회당 지출액(2018년 기준)’ 그래프는 관광지에 숙박하는 체류형 관광이 당일 관광보다 여행비 지출이 더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두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조성할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한편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군 관광객 추이에 따른 여행 1회당 지출액을 보여 주는 그래프가 제시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시각 자료 앞에 배치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마을이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는 해당 내용 뒤에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비해 같은 시기 숙박 시설의 수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②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수 추이’ 그래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한 △△군 관광객의 수를 명시하는 것과 함께 상승 곡선의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증가 추세를 부각하고 있다. 또, 관광객의 이미지 크기에 차이를 두어 관광객 수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여행 1회당 지출액(2018년 기준)’ 그래프에서는 지폐 이미지의 수량과 크기를 활용하여 ‘당일’ 여행에 비해 ‘숙박’ 여행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큼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두 값의 차이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인 막대그래프처럼 정보를 제시하되 막대를 지폐 이미지로 대체하여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한 것이다.

⑤ 기사에서는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초등학교를 특색 숙박 시설로 만들

었을 때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아닌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만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계: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62쪽 4번)

4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정답: ③) 예상 오답률 1%

셋째 장면(#3)에서는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각각에 조성된 구체적인 시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첫째 장면(#1)의 스케치에서는 기사의 제목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를 활용한 ‘○○초등학교, 폐교의 재탄생’의 문구를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하고 있다.

② 둘째 장면(#2)에서는 폐교였던 ○○초등학교의 모습에는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숙박 시설로 조성되어 ‘사람들이 북적이는’ ○○초등학교 모습에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주어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다.

④ 넷째 장면(#4)에서는 인근 관광 자원(‘빙어 축제, 수목원, ☆☆마을, 벚꽃 축제’)과의 거리를 표시(km)하여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숙박 시설의 지리적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같은 화면에 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지역 경제 활성화’)를 자막으로 구성하고 있다.

⑤ 다섯째 장면(#5)에서는 기사의 ‘방랑자’, ‘나들이’의 댓글을 반영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물놀이장, 캠핑장, 카페 등을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각 그림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도록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 다음 그림이 나타나도록 구성하고 있다.

[43 ~ 45] (매체) 텔레비전 방송 뉴스+인쇄 광고

(연계: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76쪽 1번, 212쪽 2번, 247쪽 9번)

43. 매체의 비판적 수용(정답: ②) 예상 오답률 12%

[장면 1]에서 진행자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

는 제품'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소개하고 있고, [장면 4]와 [장면 5]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함과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가)가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장면 4]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는 수용자가 주체적으로 구성한 뉴스의 정보가 아니라, 뉴스의 생산자가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이다.

③ (나)에서는 ㉠ 휴대용 선풍기의 특징만 드러났을 뿐 주된 소비자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장면 3]의 인터뷰 영상이 (나)의 인쇄 광고보다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가)의 영상이 여러 소비자의 인터뷰를 다룬 것은 아니다.

⑤ (가)에 나타난 소비자들의 선풍기 구매 기준 1순위는 '제품 성능'이다. 하지만 (나)는 ㉠ 휴대용 선풍기의 디자인만을 강조하고 있고, (가)의 비해 정보의 양 또한 적다.

(연계 :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40쪽 3번)

44. 매체의 언어적 특성 평가(정답: ㉠) 예상 오답률 7%

㉠에서 진행자는 의문형 어미 '-ㄴ까요'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에서 '선풍기.'와 같이 명사로 문장을 종결하여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휴대용 선풍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③ ㉠은 화제를 앞 문장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 '그런데'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선풍기 구매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④ ㉠에서 박 기자는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와 같이 묻고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와 같이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인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⑤ ㉠은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시청자에게 뉴스 내용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계 :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67, 177쪽)

45. 매체 자료 비교 평가(정답: ㉠) 예상 오답률 21%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문구를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배치하여 선풍기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② (가)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은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다. '자료'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존 제품과 광고 제품을 비교하며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함을 부각하고 있다.

③ '자료'는 '안전을 보증하는 KC 인증'이라는 문구와 KC 마크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이런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디자인'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내 손안의 태풍'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